

# 체언서술어 ‘夫妻一場’에 대한 다각도 분석

성기은\*

##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夫妻一場’의 의미와 통사 분석
  - 1) ‘夫妻’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
  - 2) ‘一場’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
  - 3) ‘夫妻一場’과 관련 형식 비교
3. ‘夫妻一場’의 담화 내 기능 분석
  - 1) ‘夫妻一場’과 중국의 전통적 부부윤리
  - 2) ‘夫妻一場’의 유사 성어 특징
  - 3) ‘夫妻一場’의 응집성과 응결성
4. 나가는 말

## 1. 들어가는 말

‘夫妻一場’은 중국의 인기 드라마 제목으로 사용될 만큼 관용적인 표현이지만 중국어가 모국어인 경우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제한이 따르기도 한다. 본고의 일차 목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규명이다.

‘夫妻一場’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은 ‘夫妻’와 ‘場’ 결합의 예외성에 있다. ‘夫妻’와 양사 ‘場’의 결합은 매우 예외적이다. 명량사 ‘場’은 일반적으로 전쟁·시험·경기 등을 나타내는 명사 및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명사(風·雨) 등과 결합하여 실제 실현 횟수를 나타낸다. ‘夫妻’는 상술한 명사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場’과 결합한 결과, 양사-명사의 의미 조합에 충돌이 발

\*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생하여 ‘夫妻一場’의 의미가 직관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통사형식의 예외성이다. [명량사+명사] 어순에 따르면 ‘一場夫妻’이어야 하지만 본고의 연구대상인 ‘夫妻一場’은 수량구 ‘一場’이 후치되었다. 이와 같이 통사규칙에 위배되는 점 역시 이 구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장애요소가 된다.

이에 본고는 먼저 통사구조 분석을 통하여 ‘夫妻一場’은 동사 ‘夫妻’와 동량사 ‘場’이 결합한 [동사+동량구]임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상술한 의미 조합상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새롭고 풍부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밝힌다. 다음은 담화 내 ‘夫妻一場’의 기능을 분석한다. ‘夫妻一場’은 전통적인 부부윤리를 기초로 하며, 체언서술어로서 숙어와 유사한 기능이 있다. 이에 따라 부부의 도리를 표현하는 문맥에 출현하여 전후 문장의 의미적 연관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전후 문장을 연결하는 통사 형식에도 관여하고 있음을 밝힌다.

## 2. ‘夫妻一場’의 의미와 통사 분석

### 1) ‘夫妻’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

‘夫妻一場’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먼저 ‘夫妻’의 의미와 기능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夫妻一場’과 유사한 형식을 검토하는 것은 유용하다.

‘夫妻一場’과 유사한 형식인 ‘父女/父子/母子/母女/兄弟/姐妹一場’ 등은 [핵가족 구성원 명사+一場] 형식이다. ‘夫妻’ 위치에 출현하는 명사의 특징은 핵가족 구성원 중 상호 대응·상보적 관계를 형성하여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도 존재할 수 없는 점이다. 촌수로 따지면 0촌에서 2촌 이내의 매우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만 이 형식에 출현한다. ‘夫妻’를 제외하면 모두 혈연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夫妻’는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혈연 이상으로 매우 긴밀하며 직접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祖孫一場’<sup>1)</sup>이나 ‘叔侄一場’ 등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그 구성원 간의 관계의

직접성이 낮기 때문이다.<sup>2)</sup> '祖孫'은 '子/父', '叔侄'은 '兄弟/父' 등의 매개를 통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간접적 관계이다. 밀착도가 낮고, 관계의 거리가 멀수록 친분뿐 아니라 갈등이나 긴장도 감소한다. 반면 상술한 핵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는 매개가 필요하지 않은, 일대일의 직접적 관계이다. 이들 간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고 근본적이기 때문에 해지될 수 없거나 해지가 쉽지 않으며,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된다. 접촉이 직접적이고 장기간에 걸치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과 사건이 수반된다. 종합하면, 여기서의 '夫妻'는 '혈연관계 이상의 긴밀하고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을 겪는 한 쌍의 남녀'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夫妻'는 시간적 특징을 내포한다. '夫妻'는 생면부지의 남녀가 만나 결합하고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을 거쳐 성립되는 관계이다. 따라서 '夫妻'의 형성과 유지에 '시간의 변화'가 수반된다. 아래 예문의 대화에 쓰인 '夫妻'와 '了'의 결합은 이를 입증한다.

- (1) “好老婆，這幾天你辛苦了。謝謝！”<sup>3)</sup>  
 (좋은 아내야, 요 며칠 고생했소. 고맙소.)  
 “都夫妻了，還客氣什麼嘛。”  
 (이미 부부인데 무슨 이런 인사치레를 해요.)

위의 예문에서 '夫妻'는 모르는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는 변화를 통해 성립되었음이 '了'와의 공기를 통하여 표출된다. 이외에 대화를 통하여 부부라면 고생도 마땅히 감내하는 관계라는 인식이 드러난다. 이 형식의 의미와 '了'의 기능은 '都大姑娘了'나 '大學生了'의 '了'와 같은 기능이 있다. 즉 이 '了'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1) 祖孫과 형제자매는 모두 2촌이지만 전자는 수직적 관계, 후자는 수평적 관계라는 차이가 있다.  
 2) '朋友'와 '師生'은 가족관계 명사가 아니지만 '朋友一場', '師生一場'으로 사용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朋友'와 '師生' 관계 역시 매개가 필요 없는 직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朋友'와 '師生' 역시 가족에 버금가는 친밀도를 유지하며 그에 따라 일정한 도리가 전제되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3) 본고의 예문은 CCL, 語料庫在線 및 BCC에서 수집하였다.

발생하는 변화를 나타낸다. 즉 ‘女孩兒’‘小姑娘’大姑娘이나 ‘小學生’中學生)大學生’으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부 역시 일반적으로 모두 연인, 부부, 자식의 부모가 되고 자녀가 독립하고 만년에 서로 동반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 기간 중에 감정·경제·가치관 등의변화를 겪는다.<sup>4)</sup>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이런 과정을 거치며 성립·유지되는 변화가 ‘了’를 통해 통사적으로 명시된 것이다. 이외에 예문의 ‘都’가 시간부사인 점 역시 ‘夫妻’가 지칭대상이 있는 명사가 아니라 시간과 유관한 사건을 나타내며, 진술 기능이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夫妻’의 진술 기능과 품사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겠다. ‘夫妻’와 ‘都’ 및 ‘了’와 결합은 ‘夫妻’의 [+변화]라는 의미자질이 통사 차원에서 반영된 것이다. 이와 같은 ‘夫妻’의 진술 기능은 ‘場’<sup>5)</sup>을 명량사가 아니라 동량사로 분석하는 조건이 된다. ‘夫妻’ 뒤에 수량구가 결합하는 통사적 특징은 ‘夫妻’가 서술어임을 보다 강력하게 입증한다. 아래는 그 예문이다.

- (2) 我們本來就是夫妻, 我們夫妻了三年, 後來我們分開了。  
(우리들은 원래 부부였다, 부부로 3년을 지내다 후에 헤어졌다.)
- (3) 咱倆夫妻了好幾年, 我怎麼忍心下手殺死你?  
(우리 둘은 부부로 몇 년을 지냈는데, 내가 차마 어떻게 당신을 죽이려고 손을 쓰겠소?)

예문 (2-3)의 ‘夫妻了’ 뒤에 각각 ‘三年’과 ‘好幾年’ 등의 동량구가 출현한다. 동량구는 지속된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문의 ‘夫妻’는 지속이 가능한 행위가 된다. 즉 동량구와의 결합은 ‘夫妻’가 서술어임을 입증한다. 예문의 ‘夫妻’는 바로 주어 ‘我們’과 ‘咱倆’ 뒤에 출현하며, 먼저 동태조사 ‘了’와 결합한 후 [수사+차용동량사 ‘年’]과 결합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동량구 출현 형식인 [V+수사+동량사]와 동일한 형식이다. ‘夫妻’가 동태조사 ‘了’ 및 동량구와 결합하는 현상은 ‘夫妻’가 명사가 아니라 부부로 지내는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임을 입증한다. ‘夫妻一場’ 역시

4) 袁遠, 「試論現代夫妻美德」, 『齊齊哈爾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黑龍江, 齊齊哈爾大學學報出版部, 2009, 28쪽.

5) ‘場’은 동사로 결합을 제한한다. 자세한 설명은 ‘2) ‘一場’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을 참조.

위의 예문과 동일한 [V+수사+동량사] 형식이다. 다음 절에서는 '夫妻'와 고정적으로 결합하는 동량구 '一場'의 특징을 검토한다.

## 2) '一場'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 분석

### (1) '場'의 문법 의미

명사 '夫妻'와 결합하는 전형적 명량사는 집합양사 '對'이다.<sup>6)</sup> 명사와 결합하는 상이한 양사는 이 명사의 각기 다른 속성을 나타낸다. '夫妻'의 제일 특징을 2인이 1조로 구성되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一對夫妻', 즉 '한 쌍의 부부'로 쓰인다. 이 외에 '一夜夫妻', '這類夫妻' 등도 사용되지만 '夜'와 '類'는 '夫妻' 고유의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다. '夜'는 차용된 시량사로 단순히 부부로 맺어진 기간을 나타내며, 널리 사용되는 '一夜夫妻, 百日恩'가 출처이다. 여기서 '一夜'는 '百日'과 대비되어 사용된 것이다. '類'는 부부를 몇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예를 들면 연상연하 부부, 맞벌이 부부, 주말 부부 등 외적 조건이 기준이 됨), 그 중 어떤 부류를 지칭한다. 결국 '夜'나 '類'는 부부의 고유한 특징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夫妻一場'의 양사 '場'은 부부의 어떤 특징을 포착하여 탄생하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양사 '場'은 '場1'과 '場2'로 재분류된다.<sup>7)</sup> '場1[chǎng]'은 주로 전쟁·경기·공연·시험 등의 명사나 동사와 결합하여 동작 실현에 장소가 중요요소임을 나타낸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실제 횟수를 계량하며, '演了35場'처럼 결합하는 수사에 제한이 없다. 반면 '場2[cháng]'는 개인행위('笑'·'哭'·'罵'), 함께 지냄('相處'·'同居')을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sup>8)</sup>하여 이들이 지칭하는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거쳐 발생하였음을 나타낸다.<sup>9)</sup> '場2'는 동작 실현의 한 요

6) bcc의 통계에 따르면 對-夫妻의 결합은 총 1525회로 1위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年(130회)·歲(74회)·日(50회)' 등의 시량사가 높은 결합 빈도를 차지한다. 이와 비교하면 '場'은 총 12회로 출현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7)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北京, 商務印書館, 2007, 114-115쪽.

8) 周娟, 『現代漢語動詞與動量詞組合研究』, 暨南大學 漢語言文字學 博士學位論文, 2007, 151쪽.

9)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北京, 商務印書館, 2007, 114쪽. 참조. '場2'와 결합하는 기상과 관련된 동사 및 명사는 본고에서 논하는 '場'에서 제외한다.

소인 '장소'의 의미는 이미 퇴색하였고 동작의 실현 범위를 나타내는 방향으로 보다 추상화되었다. 아래는 생활을 같이 한다는 의미의 동사와 '場'가 결합한 예문이다.

- (4) “咱們相處一場，也是緣分。”  
(우리가 한 번 같이 지낸 것 역시 인연이다.)
- (5) 畢竟同居一場，他也不容易。  
(어쨌든 같이 한 번 산 것이니, 그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예문 (4-5)의 '場'은 같이 지내기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의 일정 기간 같이 지냈다는 시간의 의미가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sup>10)</sup> 본래 '場'은 사건의 발생과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형성된다. '相處'와 '同居'의 실현에도 '시간'이 필수 요소이며, 같이 지냈던 전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場'이 이들 동사와 결합한 것이다.

'場'의 시간성은 (2-3)의 '夫妻了三年', '夫妻了好幾年'과 비교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이 예문에서 '夫妻了' 뒤에는 구체적인 시간인 '三年'이나 오랜 시간을 나타내는 '好幾年'이 출현하여 모두 실제 지속된 시간의 길이를 표현한다. 반면 '場'은 실제 지속된 시간이 얼마인가보다 함께 지냈던 경과를 나타내며, 시간은 행위의 경과에 수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작이 지속된 시간을 나타내는 '場'과 '함께 생활함'을 나타내는 동사가 공기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이 결합이 고정적·배타적·반복적으로 출현함에 따라 '相處'와 '同居'의 의미를 나타내는 맥락에서 '一場'은 '함께 생활하는 과정과 기간'을 나타내게 된다. 본고는 '夫妻一場'의 '場'과 '相處' 및 '同居'와 결합하는 '場'은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할 것'을 부부 성립의 중요한 특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절에서는 이 '場'이 결합하는 유일한 수사 '一'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10) 劉衍生, 「現代漢語動量詞的語義特徵分析」, 『語言研究』, 湖北, 語言研究編輯部, 第2期, 2003, 52-53쪽. '場'의 시간성 참조.

## (2) '一'의 기능 및 의미

동사 '夫妻'와 동량사 '場' 사이에 출현하는 수사는 오직 '一' 하나뿐이다. 결합하는 수사에 제한이 없는 '場1'과 비교하면, 결합하는 수사를 '一'로 제한하는 '場2'는 그 주요 기능이 계량이 아님을 시사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1회'만 발생하며 그 이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동작은 '死'이외에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場2'와 결합하는 '一'는 실제 횟수 이외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笑'/'哭'와 동량사 결합을 보면 이 점이 명확해진다. '笑'나 '哭'가 실현된 실제 횟수는 '次'로 표시한다. '哭三次', '笑五次'처럼 '次'는 수사 결합에 제한이 없다. 반면 '場'과 결합하면 '笑一場', '哭一場'으로만 출현하며 이외의 수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이때 '一場'은 '한 번'이 아니라 '한참' 또는 '한바탕'의 의미를 나타낸다. '次'와 '場'의 선택 사용은 '場'의 주요 기능이 동작이 실현된 실제 횟수 계량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 형식의 '一'는 실수 '1'이 아니라 '연속'과 '전체'를 의미한다.<sup>11)</sup>

'一'는 또한 동사와 결합하여 동사의 완료상을 나타낸다. 동작이 시작되어 끝나야 비로소 한정되고(bounded) 한정되어야 계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동사와 결합한 '一'는 동작의 실현과 관련이 있다.<sup>12)</sup> '夫妻'뒤에 출현한 '一' 역시 '夫妻'에 시종이 있음을 나타내며 '了'와 마찬가지로 '夫妻'가 동사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된다.

이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一'와 동작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거쳐 실현됨을 나타내는 '場2'가 결합한 '一場'은 동사 뒤에 출현하여 이 동작이 실현되는 방식과 결과를 나타낸다. 즉 동사 '夫妻'와 결합한 '一場'은 부부로 맺어지고 함께 생활하는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실현되었고, 부분 과정들의 총합이 이 행위의 실현이며, 이 행위는 짧지 않은 시간에 걸쳐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一場'은 각 부분 동작의 총합이 '하나', '전체'임을 표현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夫妻一場'의 '一場'은 '夫妻'가 동사임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부로서 일정 기간을 함께 지내는 과정을 나타낸다.

11) 王力, 『中國現代語法』, 北京, 商務印書館, 1985, 252쪽 참조.

12) 殷志平, 「動詞前成分“一”的探討」, 『中國語文』, 北京, 中國語文編輯部, 1999, 121쪽.

## 3) '夫妻一場'과 관련 형식 비교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이 절에서는 유사 형식과의 비교를 통해 '夫妻一場'의 의미를 분석하겠다. 범용양사 '次'와 비교하면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래는 '一次'가 출현한 예문이다.<sup>13)</sup>

- (6) 每個人能夠真的在一起，那是有500年的情，才可做一次夫妻。  
(각 개인들이 정말로 함께 지낼 수 있는 것, 그것은 500년의 정이 있어서 비로소 한 번 부부가 되는 것이다.)
- (7) 要經歷多少次輪回才能在人世做一次夫妻？  
(몇 번의 윤회를 거쳐야 비로소 인간 세상에서 한 번 부부가 될 수 있는가?)

예문 (6-7)의 '一次'는 의 '500年' 및 '多少次輪回'와 대조되어 '1회', '단 한 번'이라는 횟수가 부각될 뿐 부부로 지내는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비교하면 '夫妻一場'은 위의 예문처럼 실제적인 '1회'를 나타내는 맥락에 출현된 용례가 없다. '夫妻'와 결합 시 '一場'과 '一次'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一場'은 부부로 사는 기간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까지를 나타내는 반면, '一次'는 단순히 부부로 맺어진 횟수가 '1회'라는 사실만을 나타낸다. 이는 예문 (6-7)의 '夫妻'는 모두 동사 '做'의 목적어로 출현하는 명사로서 진술 기능이 없는 데에서 비롯한다. '夫妻一場'의 동사 '夫妻'와 달리 여기서는 배우자를 지칭하며 '做一次夫妻'는 부부로 맺어지는 '1회'적 사건을 나타낸다.

'次'는 오직 동작이 실현된 횟수만을 나타낼 뿐, 동작의 실현 방식과 관련된 고유하고 특별한 의미를 형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합하는 동사에 제한이 없다. 반면 '一場'은 '一'와 '場'의 본의로부터 파생의가 만들어졌고, 이에 근거하여 제한된 동사와 결합하며, 고유한 의미를 표현한다. 즉 '一次'로는 표현되지 않는 '부부가

13) '夫妻一場'과 대응되는 형식은 '夫妻一次'는 3개 말뭉치에서는 단 1건도 검색되지 않는다. 이에 이 절에서는 유사 형식인 '做一次夫妻' 중의 '一次夫妻'와 비교한다. 이와 같은 비교는 '夫妻一場'의 예외적 통사구조와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된다.

짧지 않은 기간을 함께 하며 여러 가지 사건을 겪는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夫妻一場’은 동량구가 없는 ‘做夫妻’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그 의미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아래는 ‘做夫妻’의 예문이다.

- (8) 我們裝做夫妻一樣, 到医院去。  
(우리들은 부부인 양 가장하고 병원에 간다.)
- (9) 我可沒答應要嫁你, 不想和你做夫妻。  
(나는 너한테 시집간다고 하지 않았어, 너랑 부부가 되고 싶지 않아.)
- (10) 做夫妻不難, 難得的是做一輩子夫妻!  
(부부가 되기는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은 한평생 부부로 지내는 것이다!)

예문 (8)은 부부가 되는 것이 전혀 신중하지 않으며 특정 목적을 위해 가짜 부부 행세를 하려는 상황이다. ‘一場’은 부부로 지내는 기간과 부부로서의 도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맥에 ‘一場’이 출현하면 의미가 상충한다. 예문 (9)는 부정문이다. ‘夫妻’와 ‘一場’이 부정문에 사용된 용례는 많지 않다. 조사된 유일한 부정형식은 ‘沒白做夫妻一場’<sup>14)</sup>으로, 이는 부부로 맺어진 사실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白做’에 대한 부정이다. 이 예문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부부로 지내는 과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표현하여 부부로 지낸 세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夫妻一場’은 부부의 도리와 연결되며, 부부로 지내는 것을 가치 있는 일로 평가하는 문맥에 출현한다. 이와 비교하면 예문 (9)는 ‘做夫妻’에 대한 단순 부정 이외의 의미는 나타내지 않는다. 예문 (10)은 ‘做夫妻’와 ‘做一輩子夫妻’에 각각 ‘難’과 ‘不難’이라는 판단이 대조되어 ‘남녀가 남편과 아내가 되는 단순한 결합’과 ‘남편과 아내로 일생을 사는 일’ 사이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夫妻一場’은 예문 (6-10)처럼 부부가 되는 결합을 1회적 사건, 또는 단순하고 가벼운 사건으로 묘사하는 맥락에 출현한 용례가 없다. 이로부터 본고가 주장하는 ‘夫妻一場’의 의미가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14) 명사술어문 부정에는 생략되었던 동사가 반드시 출현하는 현상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夫妻一場’의 의미를 서론에서 언급한 드라마 ‘夫妻一場’의 줄거리 소개를 통해 확인하겠다. “양가 부모의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남녀가 결혼 후 사업과 애정 상의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지만, 아내의 헌신으로 남편이 재기한 후, 이 둘은 ‘夫妻一場’의 귀중함을 깊이 깨닫게 된다.”<sup>15)</sup> 이와 같은 내용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제목이 바로 ‘夫妻一場’이다.

‘夫妻一場’은 이처럼 중국어가 모국어인 화자에게 익숙한 내용, 이미 알려진 지식 또는 정보로 기능한다. 또한, ‘夫妻一場’은 부부의 도리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맥락에 출현하여 담화의 전후 연결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장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다.

### 3. ‘夫妻一場’의 담화<sup>16)</sup> 내 기능 분석

#### 1) ‘夫妻一場’과 중국의 전통적 부부윤리

앞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夫妻一場’은 부부로 맺어져 유지하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맥락에서 사용된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11) 雖然晚年她和丈夫分居，但夫妻一場的感覺却使她牽腸挂肚。  
(비록 그녀와 남편은 노년에 따로 지냈지만, 부부로 지낸 감정은 그녀를 마음 놓지 못하게 했다.)
- (12) 女兒說醫院已發出病危通知了。我念及舊時夫妻一場就作罷了。  
(딸아이가 병원에서 이미 병이 위급하다는 통지를 발송했다고 하였다. 나는 예전에 부부로 지낸 것을 생각하여 (폭로전을) 접었다.)

15) 이상은 baidu에 소개된 줄거리를 축약 번역한 것이다.

16) 담화는 ‘discours’를 옮긴 말이다. 이 낱말은 본래 말에 의한 통보(communication)의 뜻인데 글에 의한 통보의 뜻으로도 쓰인다. 여기서는 글보다 말을 앞세우는 관점에서 ‘텍스트’ 대신 ‘담화’를 통용한다. 張奭鎮, 『綜合文法論』, 서울, 서울대학출판부, 1994, 10쪽.

예문 (11)은 부부가 비록 떨어져도 지내도 계속 걱정하게 되는 배경에는 부부로 지낸 과정과 세월에 대한 감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로 지내는 과정에서 좋고 나쁜 일을 모두 겪었지만 노년에 이르러서 상대방에 대한 연민을 갖도록 하는 요인이 바로 '夫妻一場'이다. 예문(12)는 이혼한 전처의 부당한 행위를 폭로 하려는 계획을 제지한 것은 바로 부부로 지냈던 과정임을 보여준다. 부부로 지낸 과정과 세월은 비록 불유쾌한 사유로 이혼을 한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과 자신을 최악의 상황에 이르는 것을 모면하게 한다.<sup>17)</sup>

중국의 전통 부부윤리는 '혼인은 서로 다른 두 姓氏가 서로 친교를 맺기로 약조한 것으로, 위로는 종묘를 받들고 아래로 후세를 잇는 것'이라는 규정에 잘 드러난다("昏禮者, 將合二姓之好, 上以事宗廟, 而下以繼後世也").<sup>18)</sup> 이는 부부는 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다해야 하며, 애정 이외에 수많은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관계임을 의미한다.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중국의 전통적인 부부윤리가 여전히 중요한 현대적 가치를 지니며, 현대의 화목한 부부관계의 중요한 이론적 근원이라는 점이다.<sup>19)</sup>

현대 중국사회는 가정생활의 독립성이 증가되고, 자아의식이 강화되며, 여기에 서양의 개인주의 영향까지 더해져 부부간의 충돌과 갈등 발생이 높아지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상황 다양한 갈등과 충돌을 부단히 조절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가 바로 '情'과 '理'를 구성된 전통적인 부부윤리이다.<sup>20)</sup> 이에 따르면 부부로서의 정과 도리는 현대 중국사회에서도 여전히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기준임을 알 수 있다.

가정 해체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百年偕老'를 권장하며, '情'과 '理'에 근거한 '糟糠之妻不下堂'과 같은 관념이 수용된다. '夫妻一場'은 부부의 정뿐 아니라 전통윤리에서 중시하는 부부간의 도리도 포함하기 때문에 갈등 해결을 위해 상대

17) 이외에도 '夫妻一場'이 내포한 긍정적 가치는 이와 공기되는 '不枉'이나'念/看在~的份上/情分上/緣分上'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들은 '夫妻一場'을 행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맥락에 출현한다. 자세한 논의는 '3) 담화 내 '夫妻一場'의 기능'을 참조.

18) 『禮記·婚義』華藏淨宗弘化網 참조.

19) 楊玉卿, 「中國傳統夫妻論理的現代嬗變」, 『傳承』第10期, 廣西, 傳承編輯部., 2008, 75쪽.

20) 상동.

방에게 모종의 행위를 요구하는 맥락에 사용된다.

위의 예문에서 ‘牽腸掛肚’·‘作罷了’는 의식적이든 비의식적이든 간에 ‘夫妻一場’에 근거하여 발생한 행위이다. 앞의 여러 예문에서 ‘夫妻一場’은 부부간의 갈등 해결과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맥락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인 부부윤리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夫妻一場’의 유사 성어 특징

이 소절에서는 ‘夫妻一場’이 문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 숙어와 유사하며 이는 체언서술어 형식과 유관하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숙어는 상용하는 고정구로서 일반적으로 구조적 안정성과 의미적 전체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의미적 전체성이란 숙어의 의미는 단순히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의 의미의 총합이 아니며 그 이상의 보다 풍부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뜻한다. 체언서술어구 숙어의 의미 역시 종종 글자 그대로의 의미와 일정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숙어 이해 시에는 의미의 종합이 필요하다.<sup>21)</sup> 또한 체언서술어 형식의 숙어에 수사가 많이 사용<sup>22)</sup> 된다. ‘夫妻一場’ 역시 ‘夫妻’와 ‘一場’의 단순 결합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고, 안정적인 형식으로 고정적 의미를 표현하며 일종의 이치로 받아들여지는 점에서 숙어<sup>23)</sup>와 유사하다. ‘夫妻一場’은 맥락 전개에 영향을 미치며 그 출현 전후 맥락을 추론할 수 있다.

먼저 숙어에도 사용되는 체언서술어의 정의와 형식을 검토하겠다. 체언서술어는 N1+N2 중의 N2로, 서술어 기능을 하는 명사(구)를 가리킨다. ‘夫妻一場’은 대명사 또는 인명 주어 N1 뒤에 출현한 N2로 서술어 기능을 하며, 단독 출현하는 경우도 있다.<sup>24)</sup> 체언서술어라 해도 ‘夫妻’와 ‘一場’이 동사와 절대 결합하지 않는

21) 陳滿華, 「體語謂語句形式的熟語考」, 『語言文字應用』, 2007, 76쪽.

22) 위의 논문 72쪽.

23) 숙어는 상용하는 고정 구로서 亂七八糟, 不管三七二十一, 死馬當作活馬醫 등이 있다. 숙어는 사용하는 단어가 고정적이고 의미 결합이 긴밀하며, 음이 조화로우며, 언어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어휘 단위이다. 여기에는 成語, 諺語, 歇後語와 慣用語가 있다.

24) 이 점은 일반적인 용모, 요일, 출신지를 나타내는 체언서술어문이 N2만 출현하면 서술어

것은 아니다. '夫妻一場'과 결합하는 동사는 '是'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sup>25)</sup> 이외에 '沒白做夫妻一場'에서 '做'와 결합한 예문이 1건 있다. 이는 체언서술어 부정 시에 동사가 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一場夫妻'는 이와 상황이 달라 동사 '做'와 결합하여 '做一場夫妻'로 출현한다. '一場'이 명량구로서 동사와 명사 사이에 출현한 형식이다. 이외의 경우는 주로 '上演·進行·導致' 등의 동사와 '決戰·手術·煽情戲' 등의 명사 사이에 명량사로 출현하며, 이런 결합이 다수를 차지한다. 여기서 '夫妻'는 단순한 명사로, '一場'은 '夫妻' 뒤에 출현하는 명사의 명량구로 출현하기 때문에 '夫妻一場'이 나타내는 '부부로 지내는 과정', '부부간의 정과 도리'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sup>26)</sup> '夫妻一場'과 같은 예외적인 결합을 통해서 숙어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실사 '夫妻一場'에 적합한 동사를 첨가할 수 있다 해도 그 효과는 첨가 이전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夫妻一場'은 부부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가를 이미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다. 체언서술구는 입말의 색채가 비교적 농후한 구형으로 이런 종류의 숙어는 매우 생동적인 표현 형식으로 강력한 표현력과 생명력을 갖는다.<sup>27)</sup> 또한 생략된 적합한 동사를 이 형식에 첨가해도 표현 효과는 이를 첨가하지 않은 형식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sup>28)</sup> '夫妻一場'의 경우 역시 동사 '做'를 첨가하면 '做一場夫妻'는 사실을 가감 없이 기술하여 의미가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반면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며 화자와 청자로 하여금 그들이 공유하는 지식에 바로 도달하게 하는 기능은 축소된다. 반면, '一場'이 동사 '夫妻' 뒤로 이동한 '夫妻一場'은 숙어와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간결한 형식인 '夫妻一場'이 보다 효과적이다.

다음 일반 체언서술문과 '夫妻一場'의 차이를 간략하게 검토하겠다. '夫妻一場'

기능을 할 수 없는 점과 다르다.

25) 이외에 동사와 전치사구가 결합한 '看/念在夫妻一場的情分上'과 같은 구와 결합한다(이 내용은 <3장 3>을 참조).

26) '一場夫妻'가 단독으로 사용되어 '夫妻一場'과 동일한 맥락에서 사용된 예문은 2건이다. 이런 용법은 본래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夫妻一場'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27) 陳滿華, 『體語謂語句形式的熟語考』, 『語言文字應用』, 2007, 73쪽.

28) 위의 논문 76쪽.

은 동량사를 수반하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요일이나 나이, 용모 등을 기술하는 대표적인 체언서술문은 부가성분이 첨가되지 않는다. 반면 ‘夫妻一場’은 2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夫妻’와 ‘了(동태조사)+수량구’ 형식으로 확장된다. 그 결과 일반 체언서술어보다 진술기능이 증가한다.

본래 명사로서 동태조사 ‘了’와 공기되는 체언서술어문도 있다. ‘趙延龍豪宅了幾年。(자오옌룽은 호화주택에서 몇 년을 살았다.)’, ‘幾個女人又八卦了一番。(여자 몇이서 또 남의 일을 한바탕 쑥덕거렸다.)’<sup>29)</sup>의 ‘豪宅’와 ‘八卦’는 본래 명사이지만 상술한 문장에서는 모두 동사로 사용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상표지인 ‘了’와 결합할 수 있다.<sup>30)</sup>

‘夫妻一場’와 상술한 예문의 차이점은 주어와 서술어의 긴밀도에 있다. ‘趙延龍’ 및 ‘幾個女人’와 비교하면 ‘我們夫妻一場’, ‘我和他夫妻一場’의 ‘我們·我和他’는 N2인 ‘夫妻’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趙延龍豪宅了幾年.’에는 동사 ‘住’가, ‘幾個女人又八卦了一番’에는 ‘聊’나 ‘說’ 등의 동사가 보충될 수 있다. 이 경우 N1은 ‘행위주체’, N2는 각기 장소와 대상이 된다. 반면 ‘我們夫妻一場’은 동사 ‘做’를 보충하면 N1인 ‘我們’은 역시 ‘행위주체’이지만 N1과 N2 ‘夫妻’가 ‘동등’<sup>31)</sup> 관계를 형성하는 점은 앞의 예문과 다르다. 목적어 ‘夫妻’는 ‘我們’이 행하는 ‘做’의 지배하에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做’를 통해 발생한 새로운 관계이며 주요 구성원이 바로 N1이다. 따라서 앞의 예문과 비교하면 N2의 대상성은 약화되었다. 예로 제시한 일반 체언서술문의 N1(사람)과 N2(장소/대상)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과 확연히 구분된다.

‘豪宅了幾年’이나 ‘八卦了一番’은 특정 주어에만 해당하는 진술이기 때문에 N1에 출현하는 어휘에 제한이 강하다. 반면 ‘夫妻一場’은 모든 ‘夫妻’에 해당되는 진

29) 石定栩, 「體語謂語句與詞類的劃分」, 『漢語學報』第1期(總第25期), 湖北, 漢語學報出版部, 2009, 34쪽.

30) 石定栩에 따르면 “趙延龍豪宅了幾年, ~” 등을 예로 제시하며 이들 서술어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기능하며, 의미도 매우 완전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동사를 보충할 필요도 없다. 이때 ‘豪宅’은 借代로서 ‘住在豪宅裏(저택에 살다)’를 나타낸다. 이상의 분석의 본고의 논점과 일치한다. 이상 위의 논문 같은 쪽 참조.

31) 이상의 목적어의 의미류는 孟琮(『漢語動詞用法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1999, 11쪽)을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

술이기 때문에 주어 없이 단독 출현하면 오히려 모든 부부에 대한 진술이 된다. 그 결과 '夫妻一場'은 일반화되어 부부 일반에 적용된다. 또한 '一場'은 부부가 일정 기간을 함께 하며, 그 사이 일어나는 사건을 함께 겪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백년해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회에서 '夫妻一場'은 일종의 '이치'로 수용되며, '一場'의 기간이 길수록, 발생하는 사건이 많고 힘들수록 '夫妻一場'의 가치는 높아진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夫妻一場'은 청자에게 이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청하는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은 특징과 기능을 갖기 때문에 '夫妻一場'은 화맥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절에서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겠다.

### 3) '夫妻一場'의 응집성과 응결성

중국인 화자에게 '夫妻一場'은 부부관계에 대한 통념이자 부부간의 도리의 일종으로 수용되기 때문에 담화의 화자와 청자에게 배경지식(Common Ground) 또는 상호지식(mutual knowledge)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夫妻一場'의 후속 문장으로 화자가 이를 판단 근거로 삼아 상대방에게 이에 부합하는 행위나 이해를 요구하는 발화가 출현한다. '夫妻一場'은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선행문장으로, 이를 근거로 내린 판단과 요구는 결과로서 후속문장으로 출현하여 인과관계의 담화 구조가 형성된다. 본고는 이는 내용적, 의미적인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집성(coherence)으로, 표층의 문법적 장치를 통해 이 연관성을 실현시키는 텍스트의 연결 관계를 응결성(cohesion)으로 간주한다.

앞에서 검토한 바대로, '夫妻一場'은 체언술어문이자 사자구라는 특징 때문에 성어와 유사하게 그 의미를 매우 압축적이고 강렬하며 고정적으로 전달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접속사나 부사 등의 연결어 없이 단독 출현하여도 인과관계라는 의미적 연관성을 형성한다. 아래의 예문은 '夫妻一場' 단독으로 문맥의 전개 방향을 결정한 경우이다.

- (11) 我們夫妻一場, 不說朝夕相守, 不說耳鬢廝磨, 總得見見面吧?  
 (우리는 부부야, 아침저녁으로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것은 말하지 않겠소, 다정하게 지내는 것도 말하지 않겠소, 어쨌든 좀 얼굴을 마주해야 하지 않겠소?)
- (12) 夫妻一場, 總要體諒體諒我。  
 (부부인데 어쨌든 나를 좀 이해해주오.)

예문 (11)은 ‘夫妻’의 구성원인 ‘我們’이 제시된 후, 부부로서 해야 할 여타의 것(不說朝夕相守, 不說耳鬢廝磨)은 바라지 않지만 최소한의 도리는 지킬 것을 요구한다. 예문 (12)는 화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청자가 ‘體諒體諒’ 해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상 요구들은 모두 ‘夫妻一場’을 근거로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변환할 수 있다. 즉 ‘我們夫妻一場, 所以不說朝夕相守, 不說耳鬢廝磨, 總得見見面.’, ‘我們夫妻一場, 所以總要體諒體諒我.’ 즉, 접속사 ‘因爲~, 所以~’를 첨가함으로써 선행문장과 후행문장 간의 의미적 연관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들 접속사가 출현하지 않아도 화자나 청자 모두 그 의미 파악에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담화 형성이 가능한 이유를 앞에서 검토한 내용과 연결시켜 찾으면, 언어사용자들 사이에 ‘夫妻一場’은 부부 간에 지켜야 할 도리로 전제되어 있으며 이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夫妻一場’은 ‘畢竟’·‘好歹’·‘到底’ 등의 표층의 문법적 장치를 통해 텍스트를 연결하며 응집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아래 (13-16)은 ‘夫妻一場’의 응집성이 보이는 예문이다.

- (13) 畢竟我和宋琪夫妻過一場, 我得對她負責。  
 (어쨌든 나와 송치는 부부로 지냈으니 나는 그녀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 (14) 好歹夫妻一場, 你要是真愛過你前任, 你要是個有種的男人, 也不該以這樣的方式方法對待一個女人!  
 (아무튼 부부로 지냈으니, 네가 진짜 전처를 사랑했었고, 네가 용기 있는 사내라면, 이런 방식으로 여자를 대하면 안 된다.)
- (15) “你會去看我父親嗎?”  
 (“어머니, 내 아버지를 보러 가실건가요?”)

“亦不去, 他老婆子女一大堆, 何勞我。”  
 (“가지 않을 거다, 네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들이 한가득한테 내가  
 피곤하게 갈 필요가 있니?”)  
 “到底夫妻一場。”  
 (“어쨌든 부부로 사셨으니까요”)

예문 (13)의 '畢竟'은 '夫妻一場'과 공기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부사<sup>32)</sup>로서, 어떤 새로운 상황이 출현해도 '夫妻一場'은 부인할 수 없는 도리로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畢竟'은 원인을 강조하여(張付蘭: p72) 화자와 송치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지만 과거에 부부였기 때문에 화자는 아내 송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그 근거 또는 원인으로 '夫妻過一場'을 제시한다. 이 예문은 '畢竟'이 출현함으로써 '夫妻一場'이 형성하는 의미연결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문 (14)의 '好歹'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你'와 '你前任'은 부부로 지낸 관계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대우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낸다.

예문 (15)는 모녀간의 대화로 '夫妻一場' 앞에 '到底'가 쓰였으며, 후속문장이 없는 점이 앞의 예문들과 다르다. 주의할 만한 점은 비록 후속 문장이 출현하지 않았지만, 청자인 모친은 발화되지 않은 내용, 즉 여하간 당신과 나의 부친은 부부로 지냈으니 당신의 배우자이자 나의 아버지인 그를 직접 만나야 한다는 딸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다. '夫妻一場'은 부부 간의 도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요구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 '到底'는 원인의 어기를 강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출현하지 않은 결과까지 상정하도록 담화를 연결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이 예문에 '到底'가 출현하지 않으면 응결성이 약화된다.

여기부터 '畢竟'·'好歹'·'到底'<sup>33)</sup>는 '夫妻一場'과 공기되어 공통적으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전체 문맥에서 원인을 강

32) 본고가 수집한 '夫妻一場' 예문 총 99개 중 '畢竟'과 공기되는 예문은 총 24개로서 약 25%를 차지한다.

33) '好歹', '到底' 및 '總算'이 '夫妻一場'과 공기된 예문은 각기 3개, 2개, 1개이다. '畢竟'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이들 어기부사를 '畢竟'류로 분류하면, 이 부사류와 '夫妻一場'의 공기 빈도는 약 30%가 된다.

조한다. ‘夫妻一場’은 ‘어쨌든 부부로 지냈으니 이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라’는 담화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때 ‘畢竟’·‘好歹’·‘到底’ 류 부사가 결합하면 담화 연결이 더욱 긴밀해져 응결성도 높아진다. 한편, 이들 부사 외에 ‘夫妻一場’과 공기되는 부사가 없는 점은 ‘夫妻一場’이 이런 문맥으로만 사용됨을 의미한다.

전통 사회에서는 사회질서 유지에 ‘夫妻一場’이 일조하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래의 예문은 이를 보여준다.

- (16) 我也還不知道, 但是我會查個水落石出, 不枉你和他夫妻一場。  
(나도 아직 모르겠지만 내 진상이 드러나도록 조사하여, 너와 그가 부부로 지낸 것이 헛되게 되지 않게 하마.)

예문 (16)은 결과에 해당하는 ‘但是我會查個水落石出’이 선행되어, 원인과 결과가 도치되었다. 여기서 ‘不枉’은 ‘夫妻一場’의 결과가 헛되다고 평가되면 안 되는 보람이 있는 일임을 드러낸다. ‘不枉’과의 결합을 통하여 ‘夫妻一場’은 지켜져야 할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4)</sup> 이는 예문 (16)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는 이러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행문장의 요구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하여 ‘夫妻一場’은 다음과 같은 장치를 사용한다. 첫째는 ‘念’·‘念及’ 등의 동사와 결합한다. 하여 목적어로 출현하며 구를 동원하기도 한다. 이런 장치는 응결성을 표현하는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 (17) 老爺! 念我們夫妻一場, 你就準了吧!  
(영감! 우리가 부부로 지낸 것을 생각해서, 허락해주세요!)  
(18) 念及與明曦夫妻一場, 再加上明曦是她的妹妹, 他不想傷害她。  
(밍씨와 부부로 사는 것에 생각이 미치고, 더해서 밍씨가 그녀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34) ‘夫妻一場’구에 부정부사 ‘不’가 출현한 예문은 총 3개이며 모두 ‘不枉’형식이다. 이는 9쪽에서 언급한 ‘沒白做夫妻一場’과 유사한 경우로서, ‘夫妻一場’의 가치를 부정하는 관점에 대한 부정이다.

'夫妻一場'은 일반적으로 서술어로 사용되지만, 예문 (17-18)에서는 동사 '念'·'念及'의 목적어로 출현한다. 예문(17)은 아내가 남편에게 허락을 구하는 상황이고 예문 (18)은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하는 남편의 의도를 나타낸다. 이때 '夫妻一場'은 허락을 요구하고,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이유이다. '畢竟'·'好歹'·'到底' 등의 부사는 '夫妻一場'이 원인임을 강조한다면, 예문 (17)의 '念'은 아내가 남편에게 '허락해줄 것'을 요청할 때 사정하는 태도를, 예문 (18)의 '念及'은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남편의 신중함이 부각된다. 전자는 요구의 설득력이 더해져 결과 실현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후자는 도출된 결과가 속고를 거쳤음을 나타낸다.

둘째, '夫妻一場'이 '念/看在 ~의份上/情分上/緣分上' 등의 형식에 출현한다.

- (19) 看在夫妻一場的份上, 他會好好厚葬她, 略盡爲夫之道。  
(부부로 지내는 것을 보아서라도, 그는 그녀를 후하게 잘 장례를 치러, 남편의 도리를 다 할 것이다.)
- (20) 念在我們夫妻一場的情分上, 你就不能對我溫柔些嗎?  
(우리들이 부부로 지낸 정을 생각해서, 당신은 좀 부드럽게 나를 대해 줄 수 없나요?)
- (21) 看在夫妻一場的緣分上, 俺也不告你虐待孩子了。  
(부부로 지낸 인연을 봐서, 나 역시 당신이 아이를 학대한 것을 신고하지 않겠어요.)

예문 (19-21)은 '念'이나 '看'과 '份'·'情分'·'緣分'이 호응하는 형식이다. 예문 (19)는 '他'가 '厚葬'과 '盡爲夫之道'할 것으로 판단하고, 예문 (20)은 '你'가 '對我溫柔些'할 것을 요구하며, 예문 (21)은 '俺'이 '不告'하겠다는 의도를 밝힌다. 이와 같은 후행문장의 판단·요구·의도는 '夫妻一場'에 근거한 것이며, 선행문장과 후행문장이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사실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판단·요구·의도의 원인 또는 근거인 '夫妻一場'이 '份'·'情分'·'緣分'의 각도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되는 점이 의미가 있다. 합리적인 이유나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정 또는 인연에 근거해서 후행문장이 출현한 것이다. 화자

는 정이나 인연에 근거한 판단이기 때문에 적중률이 높을 것이고,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며, 의도가 충분히 설명될 것이라고 여긴다. 더구나 확인한 바대로 ‘夫妻一場’은 긍정적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후속문장의 출현이 더욱 적절성을 가지며 설득력을 갖추게 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夫妻一場’은 담화 내에서 의미적 연관성을 드러내고, 이를 표출하기 위해 어휘적 장치를 동원하는 응결성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이런 기능을 ‘夫妻一場’의 담화 기능으로 간주한다.

#### 4. 나가는 말

본고는 ‘夫妻一場’을 명사 ‘夫妻’와 명량구 ‘一場’의 결합으로 분석하면 어순 및 의미를 설명할 수 없는 점에 주목하여 ‘夫妻一場’의 통사구조 및 의미를 밝히고, 담화 내 기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2장에서는 먼저 ‘夫妻’의 품사를 확인하였다. ‘夫妻’와 어기조사 ‘了’의 결합을 통해 ‘夫妻’의 의미자질의 하나로 [+변화]를 설정하고, ‘夫妻’와 동태조사 ‘了’ 및 ‘過’와의 공기를 근거로 ‘夫妻’를 동사로 판정하였다. 그 결과 ‘一場’은 동량구가 된다. 이때 ‘一’는 부부로 지내는 행위가 연속된 하나의 전체임을 나타내고, 동량사 ‘場’ 역시 ‘夫妻’가 부부로 지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거쳐 실현되었음을 알려 준다. 이를 종합하면 ‘夫妻一場’은 ‘모르는 두 남녀가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고 부부의 도리를 전제로 여러 가지 일을 함께 겪으며 짧지 않은 기간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3장에서는 예외적이며 간결한 형식으로 풍부한 의미를 생동적, 고정적으로 나타내는 점에서 ‘夫妻一場’은 속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런 유사성의 근거에 ‘夫妻一場’이 체언서술어인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속어와 유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夫妻一場’은 화자와 청자의 상호지식이 되며 지켜져야 할 도리로 수용되기 때문에 담화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

'夫妻一場'이 원인으로, 이에 근거하는 요구나 판단이 결과로 출현하여 인과관계의 문맥을 형성하는 것을 응집성으로 간주하였다. 이런 의미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畢竟·好歹·到底' 등의 부사, '念·念及' 등의 동사 및 '(看/念)在~의份上/情分上/緣分上' 등의 문법적 장치를 배치하기도 한다. 그 결과 담화의 응결성이 확보되고 높아진다.

#### 〈參考文獻〉

- Robert C. Stalnaker, 〈Pragmatic Presuppositions〉, Context and Content, Oxford, 1999.
- 高雲莉 方琰, 「淺談漢語賓語的語義類別問題」, 『言語教學與研究』第6期, 北京, 言語教學與研究編輯部, 2001年.
- 孟琮等編, 『漢語動詞用法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1999.
- 苗興偉, 「論銜接與連貫的關係」, 『外國語』第4期(總第116期), 上海, 上海外國語大學學報編輯部, 1998.
- 文煉, 「蘊涵·預設與句子的理解」, 『世界漢語教學』第3期(總第61期), 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對外漢語研究中心, 2002.
- 石定栩, 「體語謂語句與詞類的劃分」, 『漢語學報』第1期(總第25期), 湖北, 漢語學報出版部, 2009.
- 邵敬敏, 「動量詞的語義分析及其與動詞的選擇關係」, 『中國語文』第2期(總第251期), 北京, 中國語文編輯部, 1996.
-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增政本)』, 北京, 商務印書館, [1980]2007.
- 楊玉卿, 「中國傳統夫妻倫理的現代嬗變」, 『傳承』第10期, 廣西, 傳承編輯部, 2008.
- 王潔, 「再論“省略述語動詞”的體語謂語句」, 『遼寧專學報(社會科學版)』第4期(總10期), 2000.
- 王力, 『漢語史稿』, 上海, 中華書局 [1980]1996.
- 袁遠, 「試論現代夫妻美德」, 『齊齊哈爾大學學報』第5期, 黑龍江, 齊齊哈爾大學學報出版部, 2009.
- 劉街生, 「動量與體貌:VP前的“一”探討」, 『中山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4期第46卷(總20期), 廣州, 中山大學學報編輯部.
- 魏在江, 「語用預設的語篇評價功能」, 『中國外語』第8卷 第2期(總第40期), 北京, 高等教

育出版社, 2011.

殷志平, 「動詞前成分“一”的探討」, 北京, 『中國語文』, 中國語文編輯部, 1999.

張爽鎮, 『統合文法論』,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項開喜, 「體詞謂語句的功能透觀」, 『漢語學習』第1期, 延邊, 漢語學習編輯部, 2001.

周娟, 『現代漢語動詞與動量詞組合研究』, 暨南大學 漢語言文字學 博士學位論文, 2007.

朱永生, 苗興偉「語用預設的語篇功能」, 『外國語』第3期總第127期, 上海, 上海外國語大學學報編輯部, 2000.

陳滿華, 「體語謂語句形式的熟語考」, 『語言文字應用』, 北京, 語言文字應用出版部, 2007.

〈Abstract〉

A Multi-perspective Study of Nominal Predicate 'Fuqi yichang'

Sung, Ki-Eun

The primary goal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at the syntactic structure of 'Fuqi yichang(夫妻一场)' is not [noun + noun phrase] but [verb + verb classifier phrase].

First, in syntactic terms, 'Fuqi yichang' and co-occurrence with modal particle 'le(了)' indicate that the 'Fuqi' has the semantic features of [+change], 'Fuqi', co-occurrence with aspect particle 'le(了)' and 'guo(过)' proves that the 'Fuqi' is a verb. Based on this, verb 'Fuqi' which is combined with 'yichang' becomes 'verb classifier phras'. 'yi' of 'yichang' refers to recognizing the various actions as a whole which has occurred in the course of staying together with as 'Fuqi', and 'chang' represents that act of 'Fuqi' has occurred through the whole process from beginning to end. According to this, 'Fuqi yichang' means that pair of strange men and women get to know each other, become husband and wife, and spend a long period of time with sharing both in joy and in sorrow, premising marital duty.

This paper discovered a few features of 'Fuqi yichang' as a nominal predicate. 'Fuqi yichang' implies a wealth of information in a concise format, and features stably expressing lively sense is similar to idioms. This feature is related to that of nominals,

not the predicate to describe the fact as facts. '*Fuqi yichang*' which acts similarly to the idioms in terms of pragmatic affects the discourse structure by acting as common knowledge between the listener and speaker.

This paper reveals that '*Fuqi yichang*' forms the discourse structure of causality by analyzing '*Fuqi yichang*' which represents the marital duty as an cause, and following demands and judgment as a result. In order to achieve this causality better, adverbs such as '*bijing*(毕竟), *haodai*(好歹), and *daodi*(到底)' verbs such as '*nian*(念)·*nianji*(念及)', and '*(kan*(看)/*nian*(念))*zai*(在)~*de feng shang*(的份上)/*qingfen shang*(情分上)/*yuanfen shang*(缘分上)' etc. are co-occured, and the frequency of co-occurrence is quite high. This paper analyzes a causal relationship which '*Fuqi yichang*' forms as 'coherence', and syntactic component co-occured with this as 'cohesion'.

Key Words: *Fuqi yichang*, conjugal ethics, nominal predicate, coherence, cohesion

이 논문은 2016년 4월 10일에 접수되어 2016년 5월 9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5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